



[뉴스] 삼성전자 '갤럭시포드2' 예상 스펙 02



Economy

코스피	↑	2065.08 (+35.48)	코스닥	↑	735.72 (+22.04)
금리 (미국 3년)	↑	0.831 (+0.005)	환율 (원-달러)	↓	1225.00 (-13.50) (1일)



코스닥 '연중 최고치' 1일 코스피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2060선을 회복했다. 지수가 2060선을 회복한 것은 증가 기준 지난 3월5일(2085.26)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급등해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3.68)보다 22.04포인트(3.09%) 오른 735.72에 장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원 하락한 12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송태화 기자 alvin@

# ‘따라올 엄두 못 낼’ 초격차 전략 삼성, 평택에 8조투자 낸드라인



4차 혁명 5G 보급따른 수요 대비 클린룸 공사착수, 내년 하반기 양산 D램 라인에 15조 추가 투자 예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2라인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통틀어 2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잇달아 단행하며 ‘메모리 초격차’를 앞세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한다.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2라인에 8조원 규모의 최첨단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구축해 ‘메모리 초격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미래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평택 2라인에 낸드플래시 생산을 위한 클린룸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평택캠퍼스 2라인에 약 10조원 선의 초미세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다시 나온 투자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5G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는 8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삼성이 조만간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평택 2라인 D램 생산라인은 투자비가 15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기회를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2015년 조성된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전초기지로서 세계 최대규모의 생산라인 2개가 건설됐다. 이번 투자로 증설된 라인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V낸드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택캠퍼스 2라인의 한 개 층을 EUV 파운드리 라인으로 활용하고, 다른 한 개 층에는 메모리 반도체 D램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02년 낸드플래시 시장 1위에 올라 현재까지 18년 이상 독보적인 제조, 기술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6세대(1xx단) V낸드 제품을 양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시장의 장기적 성장세를 보고 대규모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해 점유율과 수익성 확대를 한 번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된 지난해 하반기에도 경쟁업체들이 모두 낸드플래시를 감산할 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추가 투자로 평택캠퍼스는 2015년 단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지 5년만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망라하는 최첨단 반도체 복합 생산기지로 거듭나게 됐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 실 최철 부사장은 “이번 투자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메모리 초격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글로벌 IT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경제위기 극복, 재정 총동원 하반기 반드시 ‘성장’ 반등”

文대통령 ‘제6차 비상경제회의’

하반기 경제정책 한달 앞당겨 마련 적극적인 세제지원통해 내수활력 브랜드K제품 해외화로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두고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그동안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 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둔 재정 역량 총동원 ▲어려움 겪는 기업·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 강화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회복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와 ‘수출 회복’ 정책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인 세

제 지원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진작·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 ▲민간 투자 적극 지원·생활SOC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 선도 ▲지역 경제 살리기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가속 추진 등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 회복과 관련해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 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활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을 각각 한 축으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대해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한국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청신호

## 셀트리온, 동물시험서 바이러스 100배 감소

폐조직 병변도 현저히 개선 이달 중 임상물질 대량생산



셀트리온 연구원이 시험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동물시험에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

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국책과제로 진행해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동물효능시험에서 바이러스 역가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고, 폐조직 병변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중화항체 선별을 완료하고 세포주 개발에 돌입하면서 동시에 중박대와 함께 폐렴을 대상으로 한 동물효능시험 첫 단계를 실시해 왔다. 폐렴은 축제의 일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한 동물이다.

연구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폐조직 검사에서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감염 7일까지도 염증 소견이 지속 관찰되는 반면, 약물을 투여한 저농도, 고농도 두 그룹 모두에서는 대조군 대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크게 개선돼 정상에 가까운 폐조직 모양을 보여줬다.

셀트리온은 폐렴에 이어 햄스터, 생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효능성 및 독성 시험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임상물질 생산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예정대로 최근 세포주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생산용 세포주 은행 생산을 시작한 상태다. 6월 중 임상물질 대량생산에 돌입해 예정대로 7월내 인체 임상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